

투데이 칼럼

계속되는 북한의 식량난

북한은 올해도 식량난이 심각하다. 코로나19 차단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지 3년 동안 장마당 쌀값은 계속 올라가고만 있다. 북한 당국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무기를 만드는 군수공장에서 농기계까지 생산해 농민들에게 쥐어주기까지 하는 형편이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만성적인 식량난이다.

북한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남도 해주에 최근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주민들의 대대적인 환영 인사가 이어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제작한 4종류의 새 농기계, 5500대가 도착했다.

공장과 도로에 열을 맞춰 선 농기계들을 놓고 매체들도 이런 풍경은 처음이라며 '농기계 바다', '농기계 열병식'이라고 묘사했다. 군수공장에서 새 농기계를 만들었고, 전달식 연설 역시 군수 공업 총괄인 리병철 당 비서가 맡아 눈길을 끌었다.

농민들은 생산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올해 작황도 부진할 것이라 분석이다. 불가뎀과 여름철 폭우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비료 수입량도 급감했다.

FAO, 즉 유엔 식량기구는 북한을 16년 연속, 식량 부족 국가로 선정했다. 미국 농무부는 121만 톤가량



정복규
논설위원

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고질적인 식량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나마 대규모 기근 같은 극단적인 식량난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란 전망이다. 여기엔 무엇보다 주민들의 기근 대응 능력이 커졌다는 평가다. 고난의 행군 시절에 극심한 식량난을 버텨냈던 경험이 학습효과로 나타난 것 같다.

고난의 행군 시절 이후에 주민들이 자력갱생과 각자도생의 원칙에 맞게 살아 온 것이다. 극심한 경제난과 연이은 자연재해까지 겪던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혹독한 대기근으로 적어도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다.

북한군 초대소에서 요리사로 일했던 어느 탈북민은 그때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전한다. 당시 견디다 못한 북한도 이제적으로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호소했고, 배

고품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겐 대체 식품 활용을 강조했다.

공기밥을 짜고 남은 찌꺼기로 만든 인조 고기밥과 옥수수를 고열로 가열해 만든 속도전 가루를 주었다. 그렇지만 이것조차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폭증하는 아사 상태에 주민들도 더 이상 국가 배급에 의존하지 않았다.

북한 곳곳에 장마당이 생겨났고, 이곳에서 거래되는 밀수입 식량으로 목숨을 부지했다.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장마당이야말로 기근을 이겨 낼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장마당 사장이 크게 달라졌다. 우선 북한 당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국경을 틀어막아 장마당에 유입되던 비공식 수입 식량이 현저히 줄었다.

자체적으로 생산한 식량에서도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양은 갈수록 줄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직후 6·28 경제 조치 일환으로 '포점담담제'를 도입했다.

초과 달성한 농산물은 자율적으로 팔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논밭의 지력이 떨어지고 관개시설과 농자재가 부족한 상황에선 할당된 양도 채우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보니 가을걷이가 끝날 때면 산이나 땅속에 곡식을 숨기는 일이 일반화돼, 최근 '허풍 금지법'을 제정해 양곡 관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일단 9월 가을이 되면 각 군인들이 북한이 모든 군과 군을 연결하는 도로를 차단시킨다. 빼돌리지 못하게 군량미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방식이다. 거래할 수 있는 식량이 줄면 주민들의 시장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결국 식량난이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장마당까지 위협하는 것이다. 30년 가까운 식량난 속에 기적적으로 살아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다. 한편 우리 농민들은 해마다 남아도는 쌀이 늘면서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북한 쌀 지원은 핵과 미사일 위협 상황에서 현실화하기가 절대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나 적어도 먹는 문제만큼은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묘안과 결단을 해야 할 것 같다.

사설

익산 코스트코 입점 문제

익산에 참고형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호남권 최초로 들어설 전망이다. 그간 대형마트 입점이 전주와 완주 등에 추진되다 무산된 이 유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코스트코 입점의 큰 물줄기는 잡힌 것으로 보인다. 장소는 호남고속도로 근처 익산 북 석막물관과 도로를 사이에 놓고 마주한 익산왕궁물류단지다. 이곳은 최근 전라북도에 토지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제출하고 부지 조성에 나섰다.

일부 잡목과 전선 등은 이미 제거했다. 곧 물류단지 전체 40만 제곱미터에 대한 터파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물류단지 내 약 5만 제곱미터를 매입한 코스트코는 이르면 내년 2023년 말 늦어도 2024년 초에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호남권 최초이자 부지 면적만으로는 기존 도시형 참고형 매장 두 배 이상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다. 물류단지 측은 호남고속도로와 대전-통영, 평택-익산 고속도로 등이 교차하는 이점을 살려 아울렛 형식의 다른 매장 입점도 추진 중이다.

익산시는 물류단지 측의 변경 승인 신청 접수에 따라 최근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을 접수한 뒤 전라북도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물류단지 측은 소상공인연합회와 MOU를 체결했다.

서로 협의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시내와 거리가 있어 소상공인 직접 피해가 크지 않고 지역마다 경쟁적인 위치에 나선 만큼 경제적 효과도 적지 않다면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 윈윈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스트코는 2016년 전주 예문시터, 2018년 완주 삼봉지구 입점이 무산된 뒤 익산으로 눈을 돌렸다. 쿠팡 등 호남권역 진출을 노리는 여타 물류 유통업체 입점의 물꼬가 되지 않을까 주목된다.

푸르밀 노조의 상경 집회

유제품 기업인 푸르밀이 11월 30일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지난 10월 26일 서울 분사에서 집단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직원들이 지난해부터 임금까지 삭감하며 고통을 나누고 있지만, 회사가 지난 17일 일방적으로 모든 임직원을 해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이사 2018년 취임한 뒤 회사가 적자로 전환됐다"며 "대표의 무능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회사가 어려운 데도 전임 회장이 퇴사하면서 30억 원 넘는 퇴직금을 받는 등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개 매각을 통해 직원들을 살려 달라"고 말했다.

푸르밀에는 임실 공장에서 일하는 150여 명을 비롯해 400여 명이 정리해고 대상에 올랐다. 제품을 운반하는 화물차 기사 150명과 대리점 4백여 곳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실군 신평면 푸르밀 전주공장에 남유 하는 농가는 낙농진흥회 72농가, 직속 24농가다. 하루 약 97.5톤의 집유량을 계약했다. 이 중 임실군 소재 낙농가는 19곳, 29.2톤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푸르밀이 전 직원을 해고하고 사업 종료에 나서면서 피해는 임실군 소재 전주공장을 비롯해 대구 공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임실군은 다른 유류 가공 업체와 접촉하며 판로 개척에 나섰다. 전라북도도는 '집단 위기근로자 선제 대응 프로그램'을 세우고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

푸르밀(Purmil)은 유가공 업체로 1978년 롯데유업주식회사로 설립됐다. 이후 롯데백화점으로 바뀌었다. 2007년 4월 롯데그룹에서 계열 분리되었다. 2009년 1월 지금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유가공 제품을 주력으로 하며, 음료 사업도 하고 있다.

기고문

시민 관심으로 당신의 차량을 안녕하게 하려면?

최근 차량털이 및 기름 절도 범죄와 관련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뉴스 등이 방송됨에도 여전히 범죄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름값 및 생활 물가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한발쯤 노상 또는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관련 범죄가, 특히 CCTV가 없는 어두운 곳에 주차된 화물차를 대상으로 기름 절도가 발생한다.

요즘 차량털이 범죄는 절도범이 어떤 도구를 이용해 차량 문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주차 차량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사이드미러를 접어 두는 것이 차량털이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다.

그리고 기름 절도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 CCTV가 설치된 곳에 주차하고, 열쇠 타입 연료 덮개를 사용하며, 배터리를 보강 블랙박스를 상시녹화로 전환 시켜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대부분은 차량을 주차한 후, 내릴 때 습관처럼 차량 문을 리모컨으로 시정하지만 다른 급한 불일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차량털이 범죄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또한 차량 내 현금이나 귀중품을 발견 할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되고, 강제 개방으로 인해 차량 손상 등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차량 내에는



박승수
익산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위

귀중품 등을 보이지 않게 하고 가급적 현금이나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것이 차량털이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차량을 주차할 경우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각지대는 가급적

피하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주차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블랙박스는 상시 녹화중으로 해두는 것이 차량털이 범죄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어 범행을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차량 및 기름절도 예방수칙으로 △CCTV사각지대 주차 차체 △차량 내 귀중품 보관 금지 △사이드미러 접어두기 △주차 시 차량문 반드시 시정 △화물차량 열쇠타입 연료 캡 사용 등이다.

위와 같이 대부분의 차량 운전자들은 이러한 예방수칙을 인지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본인 부주의로 인해 차량털이 및 기름 절도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항상 주의할 기를 기울여야만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